

- 광평동 도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02년 1월 25일

나. 청 원 자 : 구미시광평동 72-6 이건우 외 54인

다. 회부일자 : 2002년 1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02년 1월 29일

제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청원설명의 요지

가. 소개의원 : 나명운 의원

나. 청원내용

- 광평동 광평초등학교 앞 마을(광평동 72-6번지일원 45세대 130명)과 화신마을 사이에 고속도로 확장과 I.C공사로 인하여 관통도로가 폐쇄됨으로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였음.
 - 양 마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개설
요망 : 현재 계획중인 노폭 3m⇒ 5m
 -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방지시설물 설치
 - 고속도로 차량의 전복사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지대책 강구
- 광평초등학교 앞 마을은 노후 건축물에다 최근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지만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시설녹지 지역으로 묶여있어 건축행위가 불가하므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요망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완 진

- 광평초등학교 앞 마을은 오랜 기간동안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그 낙후성과 환경의 열악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 45세대 130여명의 주민들은 나날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의 확장과 I.C공사로 인하여 이웃 화신마을과의 관통도로도 폐쇄되고 상대적으로 마을이 더욱 낮아져서 고속도로의 소음과 차량 사고위험, 조망권 침해는 물론이며 우수기에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전락하여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더욱 가중된 실정으로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기존 관통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확장 개설토록 대책을 강구함이 절실히 요구되며
- 현재 시설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의견서 채택

- 광평동 도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청원 -

의 건 서

1. 처리기관 : 구미시장
2. 구미시 광평동 72-6번지 일원의 광평초등학교 옆 마을은 오랜기간 도시 계획시설인 녹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설치공사로 인해 이웃마을과의 연결 도로가 단절되고, 상대적으로 마을의 위치가 더욱 낮아져 우수기에는 침수가 우려되며, 고속도로 차량의 소음, 교통사고의 위험 등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더욱 가중되므로, 구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시행토록 의결하였다.

다 음

- 기존의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한 도로 (노폭 5m)로 확장 개설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 인터체인지 주변에 소음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조경 등 주변환경 개선과, 우수기 침수에 대비한 수방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음.
-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요구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 노후된 가옥의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의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02. 1. 30.

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